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때, 설치된 '체온측정기구'를 사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고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주 토요일(5/22) 청소담당은 키르키스탄 목장(박성근 집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5/23) 주일간식담당은 한나 목장(이영선 권사)에서 섬기겠습니다.
5. 교우동정 : 이원우 성도님이 5월 25일(수)에 경희의료원에서 턱관절 수술을 받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5월 16일	5월 23일	5월 30일	6월 6일
예배기도(2부)		오진석 집사	신동기 집사	이준화 집사	신재준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로템목장 (정진숙 권사)	한나목장 (이영선 권사)	아가페목장 (김경미 권사)	엘리목장 (신경미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키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1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수술 후, 회복중인 신동기 집사님, 최순애 집사님, 박상우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3.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원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터(힘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감동의 교회(원주)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김은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2021년
5월 16일
07-20호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 *성시교독 교독문 41번(시 97:1-12) 다 같 이
- *경배찬송 10장(통 34장) 다 같 이
- *참회기도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양과 기도

- 찬 송 260장(통 194장) 다 같 이
- 대표 기도 1부인도자, 2부오전석집사

봉헌과 말씀

- 성경봉독 마 14:22-33 인 도 자
-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 봉헌 기도 인 도 자
- 말씀 선포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 교회소식 인 도 자
- *결단송 620장 다 같 이
-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 요 예 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롬 11:13-18 '그리스도인의 영광'

금 요 기 도 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47)

새 벽 기 도 회 새벽 5:30 <히늘문의 만나>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고장 난 바퀴

어쩌다 큰 마트에서 쇼핑을 할 때, 가끔씩 고장 난 카트를 만나게 됩니다. 같은 멀쩡하지만 방향을 잡아 주는 바퀴에 대개 문제가 있습니다. 똑바로 가지 않고 자꾸만 한쪽으로 치우쳐 굴러 갈 때면 참 곤란을 겪습니다. 정상적인 카트라면 힘들지 않게 조종할 걸 몇 배의 힘을 기울여야 간신히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장 난 카트를 보면서 마치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리 깊은 죄의 본성, 세상에 대한 여전한 집착과 미련, 육신의 정욕과 자랑,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삶을 추구하는 고장 난 자유의지가 자꾸자꾸 궤도를 벗어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는 과녁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고 있지 못한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길은 오직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과 함께하는 죄의 길입니다.

올림픽 종목 가운데 양궁이 있습니다. 양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집중력입니다. 양궁 경기를 보면 선수가 과녁을 향해 화살 쏠 준비를 하면 응원단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이는 사선에 선 선수의 집중력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 때만큼은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마음이 여기 저기로 분산되면 우리 삶은 과녁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녁을 벗어난 삶, 그것 역시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었고, 결국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며 동행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죄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돌아다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의 길에 빠져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장 난 바퀴가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Written by 허영진